

“21년만에 셀프타이틀…100년 후에도 자우림 대표할 앨범”

데뷔 21주년…10집 ‘자우림’으로 컴백

자우림

가수 이름을 앨범 제목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리다. 신인의 패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제는 때가 왔으니 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자기주문’과도 같다. 록밴드 자우림(김윤아·이선규·김진만)은 데뷔 21주년을 기념해 22일 새롭게 선보인 앨범에 ‘자우림’을 큼지막하게 내붙였다.

10번째 정규앨범 ‘자우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만난 멤버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라는 세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이들의 새 앨범은 9집 ‘굿바이 그리프’ 이후 5년 만으로, 밴드 이름을 제목으로 내세운 ‘셀프타이틀’ 앨범을 발표한 건 “21년여 동안 쌓아온 자우림만의 음악세계를 집대성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셀프타이틀 앨범은 보통 가수들이 데뷔할 때 사용하곤 한다. 우린 4~5집 때 셀프타이틀을 써볼까 했었지만 웬지 창피하고 부끄럽더라. 이번에는 이견이 없었다. 누군가 100년 뒤 자우림을 검색하면 이 앨범을 듣게 되지 않을까? 셀프타이틀은 그런 의미인 것 같다. 데뷔할 때만 해도 20년이나 활동을 하게될지 몰랐다. 2~3장 내고 말 줄 알았다. 영화처럼 데뷔해 이처럼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운이 좋았다.”

자우림이 룬런하는 비결은 단 하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데뷔 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이들이 성공에 도취해 기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우림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멤버들이 존경스러운 정도”라면서 “이제는 철 좀 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웃었다.

“어릴때 어른이나 꼰대가 되고 싶지는 않다. 올해 초까지 20주년이 대단하긴 대단한 거보다 하고 생각했다. 조용필 선배님이 올해 데뷔 50주년이라. 절대 나대지 말자는 생각이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사실, 오래하면 나태해질 수 있는데 때마다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자우림이 데뷔 후 고비나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8집 ‘음모론’ 녹음을 끝내고 보컬 김윤아가 바이러스 감염과 스트레스 등으로 안면마비 증세를 보였



김진만·김윤아·이선규(왼쪽부터)로 이뤄진 록밴드 자우림이 데뷔 21주년을 기념해 10집을 발표했다. 앨범에 ‘자우림’이라는 이름을 크게 내건 이들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을 룬런 비결로 꼽았다.

사진제공 | 인터파크엔터테인먼트

룬런 비결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조용필 50주년…우린 아직 멀었죠
백화점처럼 다양한 곡으로 팍 채워
라이브가 좋은 밴드로 기억 되고파



고, 심각하게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다. 멤버들 역시 “마지막 앨범이 되겠구나” 싶었던다. 멤버들의 걱정과 위기로 병마를 이겨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드러머 구태훈이 지난해 6월 팀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구태훈이)2000년대 초부터 시작한 사업이 있었다. 팀 활동에 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차라리 음악적 견해차이 같은 것으로 팀을 떠난 거면 모를까, 음악 외적인 일로 그렇게 돼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언젠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자우림은 어디로 뿔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흔한 ‘일탈’ 한 번 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21년간 노래한 이들에게 맞는 표현일지는 몰라도, 자우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느 땐 한 없이 따뜻하고 친절한 음악으로 팬을 맞기도 하고, 또 어느 땐 다가가기 어

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이번 앨범은 주제가 다양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백화점 같다”라는 평도 내부적으로 나왔다.

“백화점엔 옷, 식품, 가구, 가전제품이 다 있지 않나. 그게 다 필요한 게 인생이다. 인간에게 희망과 좌절, 사랑과 분노, 밝음과 어둠이 다 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동반되는 감정들이다. 이번 앨범은 전작들보다 사운드가 훨씬 촘촘하다고 해야 할까. 유화로 치면 되직한 물감으로 색칠한 것 같다. 예전엔 ‘밴드는 즉흥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연륜이 쌓이다보니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말자는 생각이 자꾸 든다.”

자우림은 9집을 기점으로 밴드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서 겪는 생각이다. 그전까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음악 동호회’와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점차 프로

페셔널 면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새 앨범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후회를 남기지 말자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무엇보다 밴드는 라이브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자우림은 라이브가 좋다는 평가가 있지 않나. CD는 시시하다. 라이브가 좋은 팀으로 영원히 남고 싶다. 8월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무대에 서는데, 와서 보시면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광란의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우림 10집 ‘자우림’에는 10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영원히 영원히’와 ‘광견시대’ ‘있지’ 등 7곡을 김윤아가 작사, 작곡했다. 기타리스트 이선규는 ‘사이코 헤븐’과 ‘오버 더 레인보우’ 등 2곡, 베이시스트 김진만은 ‘아더 원즈 아이’ 1곡을 썼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연예뉴스 HOT 5

BTS, 美 라디오 음악 4개 부문 수상

블랙핑크, 英 오피셜 싱글 ‘톱100’

마블, 한국계 히어로 ‘실크’ 영화화

우주소녀 미기·선의, 中 ‘프로듀스’ 1·2위

뉴이스트W, 美 타임스퀘어 광고

그룹 방탄소년단이 팬클럽 아미와 함께 미국 라디오 음악 시상식인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드’에서 4개 부문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볼비 극장에서 열린 ‘2018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듀오/그룹’과 ‘베스트 댄스 트랙’, ‘베스트 송 뱀 메이크스 유 스마일’, ‘피어시스트 팬’ 부문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후보에 오른 모든 부문에서 수상하며 4관왕을 기록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드’는 미국 라디오 네트워크인 ‘라디오 디즈니’가 주최하며, 공로상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의 수상자를 팬 투표로 결정한다.

블랙핑크가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에 진입했다. 23일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78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오피셜 차트는 SNS를 통해 “축하한다. 블랙핑크는 UK 오피셜 싱글 차트에 진입한 첫 케이팝 걸그룹”라고 전했다. ‘UK차트’로도 불리는 오피셜 차트는 미국의 빌보드, 일본의 오리콘과 함께 세계 3대 음악 차트로 꼽힌다. 블랙핑크는 10일째 국내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점령하는가 하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8일 만에 9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국내 걸그룹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어벤져스’의 마블 스튜디오가 한국계 히어로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4일 미국 영화전문매체 콜라يدر 등에 따르면 마블코믹스의 한국계 미국인 슈퍼히어로물 ‘실크’가 영화화되며, 소니픽처스가 ‘실크’의 신디 문을 주인공으로 삼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위해 시나리오 개발에 들어갔다. ‘베놈’과 ‘실버 앤 블랙’에 이어지는 소니픽처스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스핀오프로 ‘실크’가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통해 마블코믹스에 처음 등장한 여성히어로 ‘실크’ 신디 문은 ‘스파이더맨’ 주인공 피터 파커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로, 스파이더맨과 유사한 능력을 가졌다.

걸그룹 우주소녀의 미기와 선의가 중국판 ‘프로듀스 101’에서 나란히 1위와 2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23일 방송된 웹 예능 ‘창조 101’에서 각각 1억8524만4357표, 1억8153만3349표를 얻어 최종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센터’ 자리에 오른 미기는 “101명의 도전자 중 자신의 장점을 알아봐준 국민 프로듀서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창조101’은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엠넷 ‘프로듀스101’의 판권을 구매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최종 멤버로 발탁된 11명은 ‘화전소녀’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중국 현지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미기와 선의는 향후 중국과 한국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뉴이스트W(JR·아론·백호·펜)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장식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23일 뉴이스트W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 실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타임스퀘어 전광판은 25일 발매되는 뉴이스트W의 앨범 홍보 광고 영상 및 사진으로 꾸며져 있고, 미공개 사진까지 담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뉴이스트W는 공식 팬카페 등을 통해 ‘러브 메모리즈’ 이벤트를 진행, 팬들에게 뉴이스트W와 함께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 바 있다. 전광판을 이 사진으로 채워 의미를 더하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